

『物名』 해제

이 강 민(한양대)

『物名』은 세로 14센티, 가로 20센티의 소책자 형태의 필사본으로 현재 쓰시마(對馬)역 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문에는 한국어 단어와 단문이 가타카나(片仮名)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 한국어에 대응하는 일본어를 역시 가타카나의 작은 글씨로 주기해 놓았다. 전체 31장의 본문 속에 단문 형식의 용례 33개를 포함하여 도합 500개의 용례가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는 서문을 포함한 제작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 저자와 제작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에도(江戸)시대 대마도에서의 한국어 학습에 ‘物名冊’이란 학습서가 이용되어 왔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一、生員十人之者共、朝鮮語を以、類合・十八史略習覺候様被仰付候間、各被召連、毎日無懈怠坂下へ參候様ニ被致候事。

一、物名冊・韓語撮要・淑香伝、此三部段々ニ指南可被致候。若輩者自身ニ覺書も不罷成者へハ、銘々帳面をとちさせ置、毎日被教候所を書付、可被相渡候。尤各義兼而朝鮮人へ右之書物得と被讀習、清濁高低少の違無之様ニ指南可被致事。

위의 기록은 1702년(享保5년)에 작성된 ‘韓學生員任用帳’¹⁾의 일부인데 여기에서 호슈는

『物名冊』『韓語撮要』『淑香伝』을 단계적으로 습득해나갈 것을 취지로 하는 조선어 학습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物名冊』이 본서 『物名』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증은 없으나 18세기 초의 대마도에서 ‘物名’과 관련된 한국어 학습서가 등장하고 있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에도시대 일본의 대표적 한국어 학습서인 『交隣須知』가 사전적인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있으나²⁾ 본서 『物名』도 『交隣須知』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① 九年母 タイ。カム。サ。 (物名, 1a)

大柑子 대감즈는 서리를 맞쳐야 빗치 곱사외 (交隣須知, 二30b)

② 澤 ウグ。ドグ。 (物名, 10a)

澤 물이 권거슬 웅덩이라 흐옵니 (交隣須知, 一21b)

③ ヒヨコ ベエ。ガ。リ。 (物名, 24a)

雛 병아리 므타게 자란다 (交隣須知, 二4b)

④ 暮レノヤケハ晴ルルト申マスル モ。ハア。チエ。ギラ。ハ。ヲム。ノイ。 (物名, 4b)

霞 노을은 저녁 아침의 쓰되 도하우 모하청이라 흐옵니 (交隣須知, 一4a)

위의 용례들로부터 본서와 『交隣須知』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본서의 ①「タイ。カム。サ。」, ②「ウグ。ドグ。」, ③「ベエ。ガ。リ。」는 각각 『交隣須知』에 등장하는 ‘대감즈’, ‘웅덩’, ‘병아리’를 가나 표기로 옮긴 것들이다. 특히 ④에 보이는 「モ。ハア。チエ。ギラ。ハ。ヲム。ノイ。」라는 단문은 역시 『交隣須知』의 ‘모하청이라 흐옵니’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종합할 때 본서는 『交隣須知』를 소재로 활용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비증보본계가 아닌 증보본계 『交隣須知』를 활용하였음을 다음과

1) 泉澄一編(1982) 『芳洲外交關係資料集』(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資料集刊11-3. p.25) 참조.

2) 安田章(1980) 『朝鮮資料と中世國語』(笠間書院, pp.223-248) 참조.

같은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物名	シャア。ギ。 (トンボウ)	クイ。トウ。ラ。ミ。 (キリギリス)	イサク。ボウ。ロイ。 (イナゴ)	マヤミ。 (セミ)	コウ。ソム。 (キツ)
비증보본계 (교토대본)	샹이	괴또라미	이삭버리	.	.
증보본계 (서울대본)	샹이	괴또라미	이삭버리	마야미	고슴뚝치

위에 제시한 표는 ‘곤충’과 관련된 단어를 중심으로 『物名』·비증보본계 『交隣須知』(교토대본)·증보본계 『交隣須知』(서울대본)을 삼자 비교한 것이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物名』의 「マヤミ」와 「コウ。ソム」은 증보본계 『交隣須知』, 즉 『交隣須知』의 ‘증보란’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본서는 증보본계 『交隣須知』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증보본계 『交隣須知』의 성립 시기인데, 『交隣須知』의 증보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대마도의 조선어 통역으로 활약했던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4-1831)를 유력시하는 설이 있다.³⁾ 특히 증보본계의 전본인 오다본(도쿄대 소장)에는 ‘寛政七年(1795년)’에 오다 이쿠고로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주기가 보이는데, 만약 증보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오다를 상정한다면 본서의 성립 시기의 상한선도 18세기 말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서는 한국어를 가나로 표기한 ‘가나전사자료(仮名轉寫資料)’의 일종에 속한다. 사실 『交隣須知』와 같이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학습서의 경우,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는 일본인이거나 아니면 한국인에게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한국어 발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본서는 한국어 발음을 학습할 수 있는 초보적인 교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본서의 한국어 가나 표기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저술한 『全一道人』에서의 한국어 표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 당시 대마도에는 이와 같은 한국어 가나표기법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한국어 음운사와 관련하여 본서

3) 迫野虔徳(1989) 「文獻方言史總論」 『九州方言の史的研究』 (櫻楓社, pp.234-243) 참조.

의 가나 표기에 대한 억측을 이강민(1993)에서 시도한 적이 있으나 향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본서의 자료적인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李康民(1990) 「薩摩苗代川に伝わる『漂民對話』について」 『國語國文』 59권 9호
_____(1993) 「對馬島宗家文庫所藏の『物名』について」 『朝鮮學報』 148집
_____(1996) 「朝鮮資料의 一系譜」 『日本學報』 36집
_____(1998) 「아스톤本『交隣須知』의 日本語」 『日本學報』 41집
_____(1999) 「言語資料로서의『韓語訓蒙』」 『日本學報』 43집
_____(2003) 「1893年刊『日韓通話』의 日本語」 『日本語文學』 17집
_____(2004) 「近世日本の 韓國語 學習書」 『日本學報』 58집
_____(2004) 「京都大本『交隣須知』에 보이는 異文例에 대하여」 『日本學報』 60집
泉澄一編(1982) 『芳洲外交關係資料集』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資料集刊11-3
迫野虔徳(1989) 「文獻方言史總論」 『九州方言の史的研究』 櫻楓社
安田章(1966) 「苗代川の朝鮮語寫本類について-朝鮮資料との關連を中心に-」 『朝鮮學報』 39・40집
_____(1980) 『朝鮮資料と中世國語』 笠間書院